美 vs 中, 차기 유엔 총장 기싸움

중국·러시아는 불가리아 후보…미국은 아르헨 후보 지지

차기 유엔 사무총장을 뽑는 절차가 종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불가리아 출신의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미국은 수사나 말코라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사무총장은 그동안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의 합의로 정해 왔고,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면 미국 편을 들어왔다는 점에서, 결국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이견 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은 자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불가리아 출신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지금까지 8명의 유엔 사무총장 모두 남자였고,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 관례로 볼 때 동유럽이 이번 차례로 꼽힐 수 있어 보코바가 유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15개국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1명을 지명해 유엔총회에 상정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최종 투표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국 10국이 포함된 안보리 표결에서 최다 득표를 했더라도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유엔 사무총장에 오를 수 없다.

현직인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이 여성 사무총장을 배출할 "적기"라고 언급하면서도 지지 후보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안보리에서 비공개 3차 투표를 한 결과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국무총리가 1위, 미로슬라브 랴차크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이 2위,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부크 예레미치 전 세르비아 외교장관이 공동 3위, 수사나 말코라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5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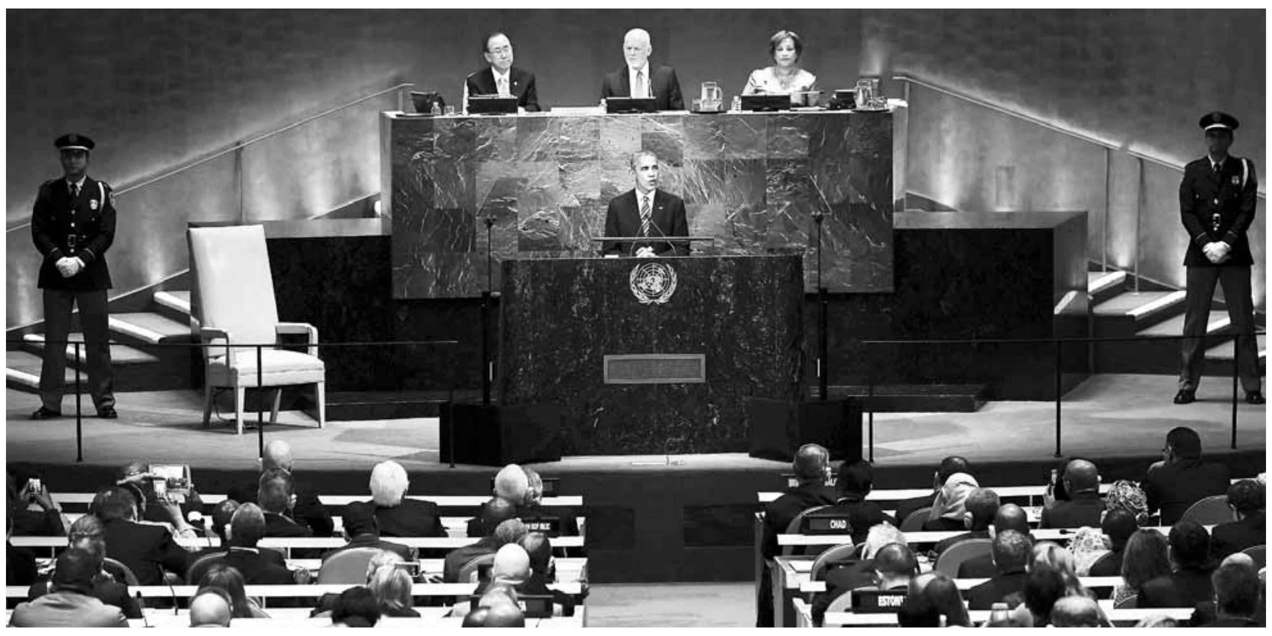
스르잔 케림 전 마케도니아 외교장관,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다닐로 튀르크 전 슬로베니아 대통령, 나탈리아 게르만 전 몰도바 외교장관, 코스타리카 출신의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6~10위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후보 10명 가운데 남녀가 5명씩이다.

유엔 안보리는 7·8·9월에 3차례 투표를 했으며, 앞으로도 의견 일치가 될 때까지 투표를 거듭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1명을 지명해 193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유엔총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의견일치가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보코바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지정학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해 여성인 수사나 말코라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을 차기 사무총장으로 밀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가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미는 보코바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감에 대해 '동상이몽'하는 가운데 조정 과정에서 자국이 미는 후보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안보리의 지명을 받은 후보는 총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 업무를 맡는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가운데)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 "세계 갈등 외교적으로 풀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오늘날 세계는 역설적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우리는 후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그의 재임 기간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대혼란을 초래하는 극단주의와 종파 간 폭력 사태가 이른 시일 내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리아 내전 등은 군사적 수단이 해결책이 아니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대국이던 쿠바와 미얀마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지원, 지구온난화 해결 및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진전 사례로 꼽으며, 자신은 전지구적 도전에 눈감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48분간 진행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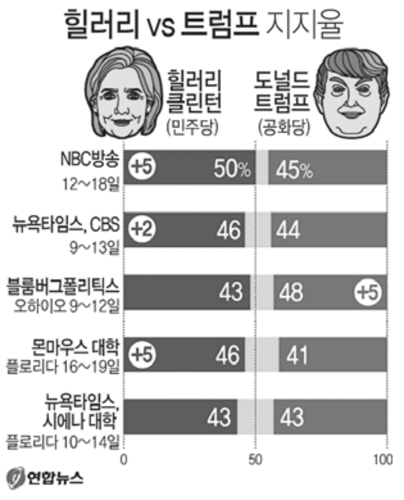
천하제일 파도 중추절(中秋節) 연휴였던 지난 19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해류와 강물이 만나 3.5m 높이 파도를 만들어내는 '천하제일조(天下第一潮)'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들이 방파제를 넘은 물살을 피하고 있다. 슈퍼태풍 므란티의 상륙에 이어 강태풍 말라카스가 지나간 저장성에는 만조 수위가 50년 만에 최고에 이르면서 중추절 기간 모두 11명이 숨지는 등 중국 전역에서 44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연합뉴스

힐러리·트럼프 지지율 '비등비등'

건강 이상설과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의 후폭풍으로 하락하던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반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20일(현지시간) 나왔다.

NBC방송이 12~18일 유권자 1만4326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의 지지율은 50%로 45%에 그친 트럼프를 5%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한 주 전에는 클린턴 48%, 트럼프 44%였다. 자유당 게리 존슨 등 제3후보 2명을 포함한 4자 가상대결에서도 클린턴은 50%로 45%인 트럼프에 5%포인트 앞섰다.



이런 변화가 클린턴이 잇단 악재에 따른 지지율 하락의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본격화한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CBS가 9~13일 실시해 15일 내놓은 4자 가상대결 조사에서는 클린턴과 트럼프가 42%로 동률을 기록했다.

양자 대결에서도 클린턴은 46%, 트럼프는 44%로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클린턴의 한 달 전 8%포인트 리드에서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또 블룸버그폴리틱스가 지난 9~12일 최대 경합주인 오하이오 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는 48%의 지지율을 기록해 43%인 클린턴을 눌렀다.

대선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은, 승부처인 플로리다 주에서도 클린턴은 우위를 지킨 것으로 파악됐다. 몬마우스대학이 16~19일 플로리다 유권자 4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클린턴은 제3후보까지 포함한 4자 가상대결에서 46%의 지지율로 41%에 그친 트럼프를 앞섰다. 클린턴은 히스패닉과 흑인, 아시아 유권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지난 10~14일 플로리다 유권자 867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클린턴과 트럼프가 양자대결에서 43%로 동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 뇌물수수로 법정 선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0·사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패 혐의와 관련해 결국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은 룰라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와 관련한 연방검찰의 기소를 확정해 재판을 하기로 했다.

브라질 연방법원의 세르지우 모루 판사는 "충분한 증거를 고려해 (연방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연방검찰은 지난주 돈세탁과 허위진술 등 혐의로 룰라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룰라 전 대통령의 기소는 브라질 수사당국이 2014년 3월부터 '라바 자투(Lava Jato·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벌인 부패수사에 따른 것이다.

브라질 수사당국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정유소 건설 사업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이 오간 사건을 수사했다.

룰라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다음 달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 금융업소, 자동차전시장 감정가28억 2천만, 최저가 19억 7천만
남구 월산동 / 건물 387평 / 대남대로변 / 1,2,3층(층별 입찰가)

◆ 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9억 6천만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접 / 3층

◆ 가스 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12억 7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108평 / 3기 6구 / 자동 세차기 / 화순 유입대로변

◆ 고급팬션 및 주택 감정가 6억 8천만, 최저가 4억 8천만
여수 / 대지 524평 건물 106평 / 해변 전망

◆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5천만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접 / 보성강 전망

◆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운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

◆ 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 매매가 16억
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1114 김 주 성